

## 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이 병 도\*\*

### I. 서론

선거제도는 통치자의 선출 및 정권 경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사실 민주정치는 선거권의 확대와 선거제도의 합리화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한 민주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관과 정치권력이 곧 국민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민주정치는 발전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기초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제도의 운용은 민주정치의 성패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체계<sup>1)</sup>인데, 그 이

---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1) 학자에 따라서는 정당체계라는 용어 대신 정당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체제'와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를 보면, 체제의 관점에서 정치체제를 국가와 레짐(regime)의 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체계의 관점에서 정치체제는 정치

유는 선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정당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본질적인 목표가 정치권력의 획득에 있다면 더욱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고, 정책과 선거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선거는 정당 간 경쟁이자 정책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간의 상관성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선거제도는 정당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단지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는 상이한 국가,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정치적 조건 및 성향 등에 의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선거가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 진행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관련하여 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즉,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간의 법칙이 태국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태국이 입헌민주주의를 도입한 1932년부터 2001년 1월 선거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으며, 구체적인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정당체계의 변화에 따라 1932-1973년, 1973년-1976년, 그리고 1976년-현재까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와 관련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련된 내용 및 규정과 함께 정당 정치의 변화를 통해 태국의 정당체계 유형과 변화를 파악한다. 4장에서는 기존 이론들을 적용함으로써 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련성 내지는

---

구성체의 유기체적 속성, 특히 구조-기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한다(김호진 1995: 76).

다른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태국 정당정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동시에 향후 태국 정당정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II. 분석 틀

샤트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의회 선거가 단순다수대표제 때 일차적으로 의석배분에 있어서 득표수에 비하여 여당에 유리하고, 제1야당에게 반대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도록 하여 결국 제3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양당체계가 형성·유지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chattschneider 1942: 178-182; 온만금 1991: 251-254).

이어서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양당체계를 촉진한다는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제1법칙과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등 기타제도는 다당체계를 촉진한다는 듀베르제의 제2법칙이 제기되었다(Duverger 1954: 217-240).

듀베르제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정논리를 제시하면서 키이(V.O.Key),<sup>2)</sup> 레이(D. Rae),<sup>3)</sup> 라이커(W. Riker),<sup>4)</sup> 사르토리(Giovanni

2) 키이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개별 선거구 수준에서 양당간 경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양당체계의 출현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3) 레이(D. Rae)는 듀베르제의 특수한 조건은 실제로 일부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당의 존재라고 하면서, 다수대표제는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수당이 없을 때만 양당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4) 라이커는 다수대표제 하에서 제3당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확립한다는 단순명제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즉, 그는 듀베르제의 법칙을 수정하여, 제1당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3당이 지역정당이 아닌 경우에는 다수대표제가 양당체계를 생성·지속시킨다는 수정 가설을 주장하였다.

Sartori) 등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변동과의 인과적 관계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사르토리는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체계를 촉진하고 역으로 다당체계를 방해한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당체계를 촉진하고 역으로 양당체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라는 명제를 공식화하였다(Sartori 1984: 43-68).

이와 같이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의 형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과 달리 이들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으나,<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형성은 관련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되어지는 정당체계의 유형은 대체로 비경쟁 정당체계와 경쟁적 정당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르토리가 비교적 세분화된 정당체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르토리는 정당의 수만으로 정당체계를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유동적 정당정치의 구조 강화에 따라 비경쟁적 정당체계와 경쟁적 정당체계로의 형성과정이 진행된다고 파악하여 경쟁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Sartori 1984: 43-68).

그는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분류 기준으로 정당의 수, 의석 수를 통한 정당의 세력, 정권담당 가능성, 이테올로기의 강도와 분절화 상태에 따라 구체화된 유형분류를 시도하여 비경쟁적 정당체계는 일당체계와 패권정당체계로, 경쟁적 정당체계는 일당우위정당체계, 양당체계, 온건적 다당체계, 분극적 다당체계, 원자화 다당체계로 세분화시켜 나누고 있다(Sartori 1984: 273-293).

정당체계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정당체계는 정형화된 상태로 불변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정당간, 정당내부의 하위구조 및 정치적

5)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로는 립슨(Leslie Lipson), 로칸(Stein Rokkan), 립셋(Seymour M. Lipset), 보그다노(Vernon Bogdanor), 블론델(Jean Blondel) 등이 있다(최한수 1992: 108-120). 이들 외에도 디터 놀렌은 선거제도의 형성과 효과는 선거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디터 놀렌 1994).

도자들의 성향 등 제 요인에 의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정당체계의 개념은 시간적 차원을 고려해야만 하며, 정당체계를 유형화되고 정적인 제도적 형태로서보다는 역사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국의 정당체계는 카나랏싸던(Kanarasadorn)의 일당체계 혹은 파벌집단으로 출발하였고, 정당이 출현하기 시작한 1946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다당체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정당체계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당체계의 유형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 경쟁성의 존재 여부와 정당의 수에 따른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면 태국 정당 정치의 변화와 전이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적인가 민주적인가를 기준으로 경쟁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 선거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설립요건 및 취소여건의 강화 여부도 경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932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태국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따라서 태국의 선거제도가 특정의 정당체계로 귀결되었는지, 혹은 다양한 정당체계와 공존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유형분류 방식에 기초하여 정당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위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정당체계의 경쟁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태국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확인해 봄으로써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 Ⅲ. 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의 변화

#### 1. 1932년-1973년

1932년 6월 24일 자칭 카나랏싸던<sup>6)</sup>이 주도하는 쿠데타로 절대군주제가 전복되고 서구식의 민주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당은 처음에 싸마콤(Samakom)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태국 최초의 항구헌법인 1932년 12월 10일 헌법에서는 정당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14조에서 국민들은 싸마콤 즉, 정치단체나 정치 협회 설립에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카나랏싸던은 싸마콤카나랏싸던(Samakomkanarasadorn)이라는 이름으로 내무부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자 했다(Buruphat 1968: 154).

싸마콤카나랏싸던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정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 정치단체였으며, 따라서 태국 최초의 정당으로 준용해서 부르는 것도 틀리지 않다(Tongdhamachart 1971: 17-18).<sup>7)</sup> 왜냐하면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로서, 초대 수상인 프리아마노빠견니

6) 카나랏싸던은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되었는데 육군 23명, 해군 14명, 민간관료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세력은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파혼(Phahon Phonphayuhasena)대령을 리더로 한 노장과 장교집단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파혼은 카나랏싸던 단장으로 1932년 쿠데타 당시 연장자로서 쿠데타 단장이 되었다. 둘째는 민간층 지도자 빠리디(Pridi Panomyong)를 리더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며, 셋째는 피분(Phibun Songkram) 소령을 리더로 하는 소장파 장교집단으로 군국주의 추진 세력으로 이후 시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다.

7) 엄격한 의미에서 카나랏싸던은 정당은 아니고 하나의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집단 내지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 태국 정치학자들은 태국 정당의 형성시기와 관련하여 카나랏싸던을 태국 최초의 정당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정당이 선거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45년부터 정당이 출현하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 카짚파이 부루팻(Khachatphai Buruphat) 외에 나롱 싰사왓(Narong Sinsawat), 크라몬 텡탐마찰(Kramol Tongdhamachart)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쑤 쨌분봉간(Suchit Bunbongkan), 리키티라웨킨(Likit Teeravekin) 등이 있다.

떠타다(Phrya Manopakornnitithada) 이후 1957년 9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나기 까지 약 25년간이나 재임했던 태국의 수상들이 거의 전부 카나랏싸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이다.<sup>8)</sup>

싸마콤카나랏싸던이 정당이라는 말인 팍칸므엥(Pakkanmueng) 대신 싸마콤을 사용한 이유는 당시 팍칸므엥이라는 용어가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고, 또한 정당으로 설립하면 다른 그룹들이 똑같이 정당을 설립하여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33년 카나랏싸던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카나챗(Kanachat)이라는 정치단체가 세력을 규합하여 싸마콤카나챗(Samakomkanachat)라는 이름의 정당설립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Buruphat 1968: 62).

따라서 쿠데타 이후 정국을 안정시키고 주도해 나가야 하는 카나랏싸던으로서 정당의 설립이 아직 적합치 않다고 보았으며, 결국 카나랏싸던은 1945년까지 정치권력을 독점한 유일한 단체가 되었다.

이후 1946년까지 마노, 파혼, 피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정당의 설립은 금지되었고, 이 기간 중 치러진 4번의 선거에서 입후보자는 개인자격으로 출마하였다. 1932년 쿠데타이후 1946년까지 존속한 헌법에는 의회가 설치되었어도 의원은 정당을 배경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었다. 의회의 반은 선거 받은 임명에 의거하였으며, 의회의 기능이나 입법과정은 군부관료통치의 수단에 지니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피분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빠리디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1932년 헌법을 폐기하여 새로운 헌법을 1946년 12월 1일 제정, 공포함으로써 정당이 참여하는 최초의 선거를 실시하는 등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협력당(The Cooperation Party),

8) 파혼폰파유하쎄나, 피분, 쿠엥, 타위, 빠리디, 탐롱 등이 차례로 수상을 역임했고, 단지 1945년 9월 17일-1946년 1월 31일까지 수상이었던 쎄니만이 카나랏싸던의 일원이 아니었다.

헌법전선당(The Constitutional Party) 등 10여 개의 정당이 출현하였지만, 이 때까지 정당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정당들도 합법적인 근거를 가진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sup>9)</sup>

1947년 피분의 쿠데타로 짧은 기간의 민간정부는 붕괴되었고, 1951년까지 피분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하였으나, 태국정치를 확고한 군부주도의 권위주의체제로 이끌고 나아가고자 1947년의 쿠데타주역들이 1951년 11월에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모든 정당들은 해산되고 1955년까지 정당정치가 금지되었다.

1955년 피분은 군부의 씨릿(Sarit Thanarat)과 경찰총의 파오(Phao Sriyanond) 세력의 견제와 자신의 정치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당설립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1955년 9월 제정된 태국 최초의 정당법이다. 이 정당법에 따라 3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였고, 피분은 쉐리마낭카셀라당(Serimanangkasila Party)을 창당하여 1957년 2월 선거에서 임명직을 포함하여 간신히 과반수를 확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선거부정의 여론과 함께 피분의 패배로 간주되었다.

육군사령관이자 부당수였던 씨릿과 파오와의 권력다툼은 당의 분열을 가져와 결국 씨릿은 탈당하여 1957년 6월 연맹당(Unionist Party)을 창당하였다. 군과 경찰로 대표되는 두 사람간의 권력경쟁은 1957년 9월 씨릿의 쿠데타로 인해 다시 군부의 권력장악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씨릿은 1958년 다시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1953년 헌법과 1955년 정당법을 폐기하고 국내정세가 정당정치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1968년까지 10년간 계엄령 하에 일체의 정당활동은 물론 정치적 집회나 결사를 금지하고 따라서 선거 또한 실시되지 않았다.

씨릿이 1958년 사망하고 타넘(Thanom Kittikachorn)이 새 수상으로 임명되자 1968년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제2차 정당법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

9) 이 때에 나타난 정당들은 대부분 뿌리디, 쿠영, 피분 등 3인에 의해 주도되면서 이들 3인 중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었다.



따라 타념의 인민연합당(The People's Union Party)을 비롯하여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민주전선당(The Democracy Front Party) 등 17개의 정당이 출현했다. 그러나 과거 10년 전과 똑같이 육군사령관이자 부당수인 빠라팻과 경찰총수인 빠라셋과의 권력투쟁은 1971년 타념과 빠라팻이 주도한 쿠데타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의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은 또 다시 금지되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1972년 12월 타념은 전체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이 중 2/3는 군과 경찰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는 누적된 태국 국민의 불만이 폭발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학생세력을 중심으로 한 시위로 타념 정권이 붕괴되면서 오랫동안의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태국은 민주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2년 이후 1973년까지 시기는 1944년-1946년 민간정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군부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였다. 1946년 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지도자들에 의해 출현한 정당은 의회의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결집시키고, 선거에서 입후보자를 출마시켜 선거 후 내각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성된 정당들은 단지 의회의원을 결집하여 특정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대부분이었다(Sinsawat 1995: 45-46).

따라서 특정 지역에만 입후보자를 내세웠고, 선거유세 지원에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정당들은 공식적인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고, 의회 내에서조차도 정당으로서보다는 하나의 파벌세력으로 존재했을 뿐이다(Sinsawat 1995: 99-100). 1947년 쿠데타로 짧은 기간의 민간정부를 붕괴시킨 군부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이후 1972년까지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지배를 실시했다. 최초로 정당법이 제정된 1955년부터 1971년까지의 정당의 발전은 1946년-1952년 시기보다 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정당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 증대해졌고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실시된 세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율이 이전과는 달리 급격히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sup>10)</sup> 국민의 정치참여 증가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걸친 정당법의 폐기로 인해 정당은 단명에 끝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 정당들 역시 대부분이 아직 의회내 의원들의 결집체에 불과했고, 다른 압력단체나 대중의 지지에 기반을 둔 정당은 아니었다. 이외에도 정당법의 제정 의도가 군사지도자들이 의회 내에서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의해서였기 때문에 이 당시 형성된 정당체계는 정통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체계가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했고, 정당체계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 또한 정치지도자들, 특히 군부가 정당에 관심이 없었고, 정당 당원들도 책임성이 없어 당수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이 개인적인 정치권력 경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Bunbongkan 1988: 116-117).

한편, 이 시기의 선거구 및 선거방식에 관해 살펴보면(Vongtrangan 1993: 177-178), 1932년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한 1945년 이전까지의 시기는 모든 정치권력이 카나랏싸던에 독점되어 있었다. 카나랏싸던은 쿠데타에 성공한 후 1932년 6월 잠정헌법을 기초로 12월 10일 태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여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헌법 하에서는 1933년, 1937년, 1938년 등 세 번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1933년 선거는 1932년 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마을(tambon) 단위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선출하고, 인구 10만 명당 1인의 의원을 기준으로 이들이 각 도(道)당 두 명씩의 대표자를 뽑도록 하는 간접적인 선거방식을 택했다. 또한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의원 1인을 더 선출하도록 규정했다(Samuttavanich 1971: 136-137).

1937년 선거부터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여 1946년 8월 선거까지 지속되었다. 이 방식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도에서 여러 개의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10) 1957년 2월 선거 57.4%, 12월 선거 40.1%, 1969년 2월 10일 선거 49.16%.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만약 인구 15만 명 당 1인의 의원을 뽑도록 규정한다면, 인구가 55만 명인 도에서는 선거구를 세 개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총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한편, 1948년 총선부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1969년 2월 선거 때까지 사용하였다. 특히 1958년 싸릿의 쿠데타로 헌법이 폐지되고 모든 정당이 해산되어 1969년 2월 선거 때까지 12년 동안 태국에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Samuttavanich 1971: 139).

이 방식은 최소한 한 도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구 15만 명 당 한 명의 의원을 가지며, 15만 명을 초과하는 나머지의 인구수가 반(7만 5천)을 초과하면 의원 한 명을 더 선출한다. 예를 들면 인구가 38만 명인 도에서는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중선거구제 선거방식을 취하면 반드시 선거법에 다수대표제인지 혹은 비례대표제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그러면 정당체계를 구성하는 제요소들을 종합하여 이 시기의 정당체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1944년-46년 기간을 제외하고 군부권위주의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는 경쟁적인 정당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제도를 보면 민간정부 시기였던 1946년 1월과 8월의 두 번의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고, 1948년 이후 1952년 기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정당법이 제정된 1955년부터 1957년까지의 시기 역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선거제도는 왜곡현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고 각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체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쿠데타에 의한 정당의 해산으로 정당 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큰 특징이었다.

한편 정당법에 있어서도 1955년부터 정당법이 단일법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정당의 설립 및 존속에 관해 제1차 및 제2차 정당법 모두 그다지 강한 규제 조

향을 담고 있지 않아 비교적 자유로운 정당활동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정당법은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정당활동이 허용되었던 1944년-46년, 1948년-51년, 1955년-58년, 1968년-71년 시기의 정당체계는 제한적이거나 경쟁적인 정당체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를 볼 때<표 1> 다당체계를 형성하였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정당간 경쟁은 줄곧 군부정당인 여당들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양극적 구도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정당체계는 사르토리가 분류한 정당체계의 유형 중 극한적 다당체계 유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1955년-1972년 기간 선거참여 정당 수 및 의석획득 정당 수

선거	선거참여 정당 수	의석획득 정당 수
1957년 2월 26일	17	8
1957년 12월 15일	19	8
1969년 2월 20일	11	7

그러나 군사정부는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부정선거였던 1957년 2월 선거는 제

11) 1932년 쿠데타 이후 1955년까지 23년 동안 정당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당설립의 자유에 근거해서 형성되었다. 제 1차 정당법은 "500명의 당원 혹은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반드시 내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정당은 지구당의 설치, 새 당원의 충원, 그리고 유권자들로부터 현금이나 물품으로 당비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질서와 도덕에 위배되거나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등이다. 1968년에 제정된 제 2차 정당법은 정당 등록의 경우 15명의 발기인 혹은 5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했으며, 정당 설립을 준비 단계와 설립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정당설립 요건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정당을 '법인'으로 인식하여 정당에게도 다른 법인처럼 자산과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정당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수상과 모든 각료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각료 배분으로 인한 정당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498 lae 2511).

외) 의회의존에 부담을 느꼈을 때마다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27년 기간 중 단지 8년간만 정당정치를 허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정당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한 그 형성여건조차 충분하지 못하여 정당간에 균형적인 경쟁관계가 전개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였다.

## 2. 1973년-1976년

1973년 10월 14일 학생주도의 시위로 인한 타남 정권의 붕괴는 2차 대전 이후 피분의 실각에 이어 등장했던 민주주의시대를 소생시켰다. 새 수상이 된 민간인 출신의 썬야(Sanya Dhamasakdi)수상은 1974년 10월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제3차 정당법이 제정되었다. 제3차 정당법에서는 모든 의회의원들이 정당소속이어야 함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당적을 고수해야 하도록 규정했고, 만약 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당으로부터 제명된 후 60일내 다른 정당의 당적을 갖지 못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517) 태국의 정당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1975년 1월 총선에서 선거 결과 다수당이 없었으므로 18개 정당의 지지를 받은 크릿(Kukrit Pramoj)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한 달도 안되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의회가 해산되는 등 민간정부 하에서도 태국의 정치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

1976년 4월 총선에서도 야당인 쉐니(Seni Pramoj)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나 역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좌우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국외적으로도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등 태국의 안보위협이 가중되자 군부는 1976년 10월 쿠데타를 일으켜 3년 간의 짧은 민간정부는 다시 군부의 손에 넘어갔다.

이 시기의 선거제도를 보면, 1974년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도를 모든 선거구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혼합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인구수에 따라 1-3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한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인구수 15만 명에 1명의 비율로 계산된 기준에 따라 전년도의 인구조사에서 발표된 각 선거구(Changwat)의 주민 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구수 15만 명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15만 명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5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인구 7만 5천 명 이상으로 그에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만 명으로 계산한다.

만약 3명의 의원을 초과하는 도가 있으면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선거구 당 최대 3명의 의원을 갖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원 수가 4명인 도에서는 선거구를 두 개로 분할하여 각 선거구 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 수가 8명이면 선거구를 세 개로 분할하여 제1, 제2 선거구에서는 3명씩 그리고 제3 선거구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이 시기는 민주적 헌법의 제정으로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오히려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당이 난립하였던 이유는 1974년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Mivongkot 1999: 93-125).

즉, 임명직의 상원의원은 수상이나 각료로 임명될 수 없고 이들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권도 없었다. 또한 각료의 의원 겸직 금지, 그리고 수상과 장관은 국민의 직접선출에 의한 하원의원 출신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법적 요인 외에도 더 이상 군부통치를 원치 않는 정치적 분위기가 국민들의 정치적 자각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것은 오히려 많은 정당이 창당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는 완전한 민주적 헌법의 제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국가통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즉,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가 높아지고, 선거에서 정당들의 간의 경쟁에 의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들은 민

주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당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정당체계를 분석하면, 먼저 정치체제는 참여적 경쟁체제로 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문화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참여형 정치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시기보다는 급속한 속도로 참여적인 양상들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1975년과 1976년 두 번 실시되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 혼합방식으로 단선다수대표제를 채택하여 동일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소속 후보자들이 여러 명 당선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당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선거제도 역시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법에 있어서는 제3차 정당법이 제정되어 10명의 발기인과 5백명 이상의 당원을 규정한 제1차 및 제2차 정당법과는 달리 15명의 발기인과 1천 5백명의 당원으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Phrarachabanyatpak kanmueng Pho. Seo. 2517) 발기인 수와 당원 수가 각각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당 설립과 존속에 그다지 엄격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법은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1973년-1976년 시기의 정당체제는 경쟁적인 정당체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당도 강력한 정당이 없이 1975년 선거에서 42개 정당이 참여하여 23개의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였고, 그리고 1976년 선거에서는 37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18개의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는 등 수많은 정당이 난립해 있었으므로 사르토리의 분류에 따르면 극도의 혼란시기에 형성되는 원자화 정당체계의 유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3. 1976년—현재

1976년 10월 이후 2년 반 동안 의회는 열리지 못했고, 1978년 군부의 의회와 내각에 대한 강력한 역할을 인정하는 새 헌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활동이 재개되어 1979년 4월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번의 총선이 실시될 당시에는 정당법이 아직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당이라는 명칭 대신에 '정치가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한편, 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해 지속되어 온 태국정치는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을 바탕으로 1980년 이후 신크렘 수상 하에서 안정된 의회정치를 구현하면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초석을 다지게 된다. 신크렘은 육사 5기와 7기로 대표되는 군부의 주요 파벌들과 정치인 그리고 국왕과 국민들 모두로부터 신임을 받으면서 민주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과감한 정치개혁조치들을 취했다(Bunbongkan 1987: 34-40).

신크렘 수상의 민주적인 정부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정당활동도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게 확대되었고, 정당들도 의회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서경교 1992-1993: 169).

과거 소수정당들의 난립으로 무질서했던 태국의 정당구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제3차 정당법이 1981년 7월 통과되어 1983년부터 시행되었다. 새 정당법은 전국 4개 지역을 망라하여 최소한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각 지역에서 최소한 5개 도에 걸쳐 당원이 있어야 하며, 각 도의 최소 당원 수는 50명으로 규정하였다(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524). 이 법에 따라 1983년과 1986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과거처럼 무수한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

정당정치에 개입할 필요 없이 군과 민간관료의 지지를 받으며 수상직을 수행했던 신크렘은 재임요청을 거절하고 1988년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부상한 찻차이에게 수상직을 넘겨주었다. 찻차이 수상은 1976년 쿠데타 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출신 수상으로서 과거 실패 정부에서 연립 정권을 구성하였던 정당들을 계속 정권에 참여시키며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노력하였지만 지나치게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일부 내각의 치부 및 파벌투쟁 그리고 정치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적과 사리사욕의 추구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결국 또 다시 군부의 정치개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태국정치에서는 자본가세력이 정당에 참여하여 의회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원이 되어 출신지역의 이권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정당참여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의 여부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되어 버렸다.

심지어 같은 지방의 기업들은 여러 후보들을 여러 정당에 분산시켜 출마시키고, 당선된 후에는 연립정권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옮겨감으로써 이권을 행사하는 내각의 자리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연립정권에 참여한 정당들은 각 정당의 의석에 비례하여 내각의 자리를 분배하는데 익숙해졌고, 정당의식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매년 내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태국의 정당정치가 움직였다.

어쨌든 1980년 이후 실패와 찻차이 정권의 10년 반 동안 민주적 정치체제 수립에 노력해 온 태국은 정부와 군의 불신감의 표출로 인해 또 다시 쿠데타를 맞게 됨으로써 민주화 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1년 2월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잡은 군부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 National Peace Keeping Council)를 구성하여 헌법효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였다.

아난(Anan Panyarachun)을 과도기 수상으로 임명한 군부는 1992년 3월 총선에 대비해 군부정당인 싸막기탐(Samzkkhitham)당을 만들어 태국국가당(Thai National Party)당과 사회행동당(Social Action Party)을 끌어들이 의회를 통한 권력유지를 계획하였다. 총선 결과 제1당이 된 싸막기탐당은 다른 4개 친군부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수순대로 군부실력자였던 쑤찐다(Suchinda

Kraprayoon)를 수상으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직선의원에서 수상이 선출되기를 희망했던 국민들은 1992년 5월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를 벌여 결국 군부세력을 퇴진시키고 민간정부를 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태국정치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이끌어냈다.

1992년 9월 13일에 있는 총선에서 추언(Chuan Leekpai)이 이끄는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반군부 야당인 차왈릿(Chavalit Yongchaiyut)의 새희망당(New Aspiration Party), 째렁(Chamlong Srimuang)의 진리의 힘당(Palang Dharma), 단결당(United Party) 등이 가세하여 과반수가 약간 넘는 185석을 확보함에 정부 여당으로서 연립정권의 구성을 하게 되었다.

1992년 5월 사태로 태국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던 군부가 물러나자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력의 변화가 태국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 5월 민주화시위 이후 1997년까지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들어선 추언, 반한, 차왈릿, 추언 수상 등 4번에 걸친 민간정부 하에서도 연립정권내의 갈등과 반목, 헌법개정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대립, 내각분배에 대한 각 파벌들의 불만, 그리고 매 선거 때마다 행해지는 매표와 금권선거의 악순환 등으로 연정탈퇴와 참여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정당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10월 11일 개정된 태국 헌정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에서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100명)과 지역구 의원(400명)으로 각각 구성되고, 상원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제도 사상 가장 민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의원의 경우 유권자는 각 정당에서 만든 명부에 투표 하며 정당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입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명부제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총 유권자의 5%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에서 선출된다. 5%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획득하게 되며 명부에 기록된 입후보자의 번호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상원의원의 경우 도를 기준으로 하며, 유권자는 선거구 당 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1997년 헌법과 1998년 각각 개정된 정당법 및 선거법에 따라 2001년 1월 6일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총선 결과 예상을 뒤엎고 탁싌 친나왓(Taksin Chinnawat)의 타이사랑당(Thairakthai Party)이 과반수의 2석 모자라는 248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둠으로써 태국 선거사상 최대 정당이 탄생하였다. 타이사랑당은 41석의 태국국가당과 36석의 새희망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여 총 500석 중 325석의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했다 (Matichon 01/02/06/, p.1).

이번 선거에서 신흥정당인 타이사랑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추언 전 정부에 대한 반감의 표출과 함께,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파고든 선거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Matichon Weelky 01/02/09).<sup>12)</sup> 어쨌든 타이사랑당의 등장으로 일부 학자들 사이에 태국의 정당정치가 양당체계의 구도로 나아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현재까지 시기는 1978년 헌법과 1997년 개정헌법, 그리고 1981년 제4차 정당법의 제정으로 태국 정당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그러나 새 정당법의 규정은 1979년 4월 22일과 1983년 4월 18일 총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1986년 7월 선거부터 적용되었다.

총선은 총 여덟 번 실시되었는데, 특히 1986년 7월 총선은 새 정당법에 따른 첫 선거로서 태국 정당체계 발전의 도약의 시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로 간주되었다.

즉, 입후보자는 반드시 정당소속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동의 없이 당적을 옮길 수 없고, 정당의 당헌에 위배될 때는 제명되어 의원

---

12) 탁싌은 농가부채 3년 상환 유예, 농어촌 지원용으로 7만 개 마을에 1백만 바트(약3천만 원)씩 무상지원 등의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정당의 입후보자 공천은 법률이 정하는 수에 의거 1981년 정당법이 총 의원수의 1/2 이상, 1991년 헌법에는 120명, 그리고 1992년의 1981년 정당법 추가 개정에서는 1/4을 각각 규정해 놓았다 (Phrarachabanyatpakkannmueng Pho. Seo. 2524).

그러면, 1978년-현재까지 시기의 정당체계를 분석해 보면, 먼저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군부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양되어 가는 과도기형 민주주의체제 혹은 민간정부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준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체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문화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참여형 정치문화적 특성들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참여형 정치문화로의 이행 현상이 뚜렷이 발견되기 때문에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구제는 1996년 선거까지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의 혼합, 그리고 2001년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973-76년 기간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자유롭게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여 경쟁하였기 때문에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법에 있어서는 1979년 및 1983년 선거를 제외하고 이후에 실시된 여섯 번의 선거에는 정당설립 및 존속에 있어 한층 강화된 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제4차 정당법의 제정으로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제4차 정당법의 추가개정에서 각 정당이 추천해야 하는 입후보자의 수가 총 의원 수의 1/4로 다소 완화됨으로써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1978년-현재까지의 정당체계는 경쟁적인 정당체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입후보자 공천 수에 대한 규정은 각 정당이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명목상의 후보자를 내세우는 폐단을 야기시켰고, 또한 선거참여정당도 줄지 않아 여전히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체계

를 형성하면서〈표 2〉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해 5-6개 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표 2〉 1978년-2001년 기간 선거참여 정당 수 및 의석획득 정당 수

선거	선거참여 정당 수	의석획득 정당 수
1979년 4월 22일	46	14
1983년 4월 18일	14	10
1986년 7월 27일	16	15
1988년 7월 24일	15	15
1992년 3월 22일	15	11
1992년 9월 13일	15	11
1995년 7월 2일	12	11
1996년 11월 17일	15	11
2001년 1월 6일	15	9

또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나 선거 이후에도 많은 정당들이 여러 과별로 분열되어 정당의 이동이나 해체, 신당의 창당 등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당체계 유형은 사르토리의 제한적 다당체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에서 최초로 정당이 출현한 1946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의 정당체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었다(이병도 2000: 176-177).

〈표 3〉 태국 정당체계의 유형변화

시기	정당체계의 유형
1932년-1972년	극한적 다당체계
1973년-1976년	원자화 정당체계
1978년-현재	제한적 다당체계

첫째, 오랜 기간동안 태국의 정당체계는 다당체계였으며, 어떠한 정당도 과

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어 무소속의원이나 다른 당의 의원을 영입하여 과반수를 확보하여 정부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러 당의 연합에 의한 연립정권을 구성했다. 둘째, 이러한 다당체계는 군부권위주의 시기에는 7-8개의 정당들이, 민간정부 시기에는 10개 이상의 정당들 심지어는 20여 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 후보를 내고 의석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일부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유명무실한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이든 중선거구이든 혹은 혼합방식이든가를 막론하고 일어났다.

현재의 정당체계 역시 다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00년 1월 6일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 타이사랑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여 앞으로 양당체제로 변화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한편, 경쟁성의 측면에서 보면, 태국의 정당체계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제한적이거나 경쟁성을 갖추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정치체제가 군부권위주의체제였던 시기에는 경쟁적인 정당체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체제하에서도 군부지도자들은 종종 의회제도라는 형식을 지배강화와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노력했고, 정치적 경쟁원리에 따른 선거행위의 경쟁성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경쟁적인 정당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1973년-76년 민간정부시기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경쟁적인 정당체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특히 1988년 태국국가당의 찻차이, 1992년 민주당의 추언, 1995년 태국국가당의 반한, 1996년 새희망당의 차왈릿, 그리고 2001년 탁신 등으로 정치권력이 교체된 사실은 민주정치를 위한 정당정치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은 물론, 태국이 정당간 선거에서 정치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을 실현시킬 정도의 경쟁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팅턴은 절차적 민주정치의 공고화를 재는 잣대로서 두 차례의 정당간 권력 교체를 들고 있는데(Huntington 1998: 266-267), 태국의 정당정치에

이를 적용한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이 그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IV.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호관련성 분석

앞장에서 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 전개 과정에 대해 크게 세 시기로 살펴보았다. 태국의 첫 선거는 1933년 11월 15일에 실시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6일까지 총 22차례의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제도로는 다음과 같이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혼합 방식 등의 세 가지 형태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선거구제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순다수대표제를 유지하여 왔다.

첫째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 둘째 각 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선거구의 의원 수는 각 도의 유권자 수에 따르는 중선거구제 방식, 셋째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방식 등으로 태국의 첫 선거였던 1933년 11월 15일 선거만 제외한 총 20번의 선거 중 1937년-1946년 기간과 2001년 선거는 소선거구제, 1949년-1969년 기간의 선거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1975년 이후 1996년까지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혼합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또한 1975 이후 선거 중 1979년과 1983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는 정당에 소속되도록 규정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양당체제와 결부되거나 다당체제와 결부될 때도 결국은 양당체제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정당의 수를 줄여주는 동시에 거대정당을 형성할 기회가 많아지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고도 의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고, 전국적인 규모 면에서 본다면 득표수가 적은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반대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적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반면 대선거구제의 일종인 중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정당으로 하여금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내게 하도록 하여 다당체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낳으며, 이러한 동일 정당후보자간의 경쟁은 정당 내의 파벌 형성이나 정당간의 이합집산을 야기시키고 정당의 조직보다는 파벌의 조직이 우선시 되는 경향을 낳는다.

또한 중선거구제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여 후보자들로 하여금 인맥 등에 의한 지지자의 동원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선거자금의 수요가 커져 결국 투표에서 대표행위 등 부정이 발생하게 된다.

태국의 경우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였든, 중선거구제였든, 혹은 이 두 제도를 혼합해서 채택했든지 특정의 정당체제로 귀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당체계를 유지해 옴으로써 기존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고, 따라서 태국의 정당체제는 선거제도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01년 총선에서 타이사랑당이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을 획득하여 양당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타이락타이당의 선거 유세에서 보여준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과 탁싸의 개인적인 인기도가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볼 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다당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이 태국에서 지속적으로 다당체제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태국인의 투표행태 및 정치문화, 그리고 정치엘리트들의 행태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먼저 그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보여준 태국인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보면, 투표율 면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즉, 1937년부터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한 후 1983년 선거까지의 투표율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한 42.73%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면서 민주화과정을 밟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선거에서도 매년 평균 60% 내외의 투표율을 나타내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난 2001년 1월 6일 선거에서는 69%를 나타내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정당정치의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태국의 경우 사회경제발전이 국민의 투표율에는 그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에 투표율을 보더라도 태국에서 경제적 발전 혹은 근대화와 투표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52년, 1969년, 1979년 그리고 1983년 등 네 번에 걸친 선거에서 근대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수도 방콕이 전국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데서 쉽게 증명이 되고 있다(Trimat 1998: 34-35).<sup>13)</sup>

태국인의 투표율이 저조하고, 방콕과 같은 대도시보다 농촌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태국학자들은 농촌지역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높거나,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도록 쉽게 동원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행태는 선거를 통한 태국인의 정치참여 형태를 '동원된 참여'(mobilized participation) 형태로 특징지우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선거에서 대도시보다는 농촌의 투표율이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Bunbongkan 1999: 231).

태국인의 투표행태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으로, 태국인들은 어떠한 변화를 원하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견제 등을 표출하기 위해서 투표하기보다는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의무감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Bunbongkan 1999: 241-248).

즉, 대부분의 태국인은 국회의원은 단지 국민들의 대변자를 위한 의무와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만 생각함으로써 투표행위가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13) 방콕은 1952년 선거에서 23.30%, 1969년 선거에서 34.66%, 그리고 1979년과 1983년 선거에서 각각 22.46%와 32.57%로 전국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단지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변화를 유도하도록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정치적 권력 내지는 정치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감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유권자는 정부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정당을 고려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을 중시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투표자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일수록 유권자의 관심은 더욱 적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하원의원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선출되는 태국 총선에서 농촌 유권자들의 비중은 막대하다. 농촌 유권자들은 선거시 정당의 정강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 프로그램, 혹은 입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이나 계획보다는 입후보자가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도로 및 교량건설, 학교건설, 우물시공, 불교사원에 대한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에서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병도 2000: 152-153).

물론 1992년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거를 감시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로 선거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실시된 2001년 1월 총선에서도 선거부정행위로 63개 지역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정도로 불법선거, 타락선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하한 정당도 어느 특정세력의 안정된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당조차도 그러한데 그 이유는 유권자가 매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꾸는 투표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지지를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입후보자 개인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결국 다당체계를 낳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태국의 정치문화가 국민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투표행태에서

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권위주의,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그리고 공동체성 등은 여전히 태국인의 정치적 정향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근대화가 모든 분야와 계층에 골고루 퍼지지 않아 사회의 어떤 계층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더 참여적이거나 자유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문화가 혼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의 일반 대중들은 정치적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즉, 정치인들이 너무 타락하여 선거에서든 각료배분에 있어서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는 한편, 설사 참여한다해도 그것은 어떠한 정치적 의식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에게 돌아 올 반대급부 때문이다 (Bunbongkan 1999: 68-71).

결국 태국에 정당정치가 도입된 지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유의 하나는 바로 서구식의 정당정치가 태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융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체제의 구심점이자 태국의 정체성과 권위의 최고 상징인 국왕의 존재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 업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태국 정치문화의 보수성을 쉽게 지워 버릴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왕의 절대적 권위와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태국 정치문화가 보수성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태국의 정당정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왕의 정치의 개입과 조정 능력은 극단적인 사태악화 방지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세속적인 정당정치의 발전은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꾸준한 정치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 40여 년 동안 태국의 사회경제적 근대화는 비록 사회의 모든 분

아와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지만 태국 정치문화의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태국의 정치정향이 태국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정치의 자연적인 형성보다는 인위적인 형성을 허용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다당체계가 형성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정치엘리트들의 행태를 들 수 있다. 태국 정당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가 한결같이 인물중심의 명사정당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태국에서 선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 간의 경쟁이 되지 못하고 개인적 인물을 중심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Vongtrangan 1993: 62-63).

이러한 것은 태국의 정당정치 역사를 보면 정당이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체계를 유지했다기보다는 파벌이 중심이 되어 기능을 담당하여 왔고 또 파벌들이 정당을 지탱하여 왔다는 데서 파악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나는 파벌행태는 바로 태국인의 정치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태국정당의 파벌주의를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태국 사회구조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위계적인 권위주의 의식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국의 정당은 극도로 인물중심 정당의 성격을 띄어 왔다. 즉,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후원-수혜관계의 폭을 버리지 못한 태국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는 파벌세력간의 균형정책이 아닌 분파적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Mivongkot 1999: 130-133).

태국 정당정치에 있어 파벌주의의 또 다른 원인은 절대군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와 이로 인한 관료엘리트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료사회는 출신과 서열이 대단히 강조되는 사회로 관료사회 전체를 수직적 관계로 나누는 후원-수혜 관계의 많은 파벌들을 낳게 했다.

또한 태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개인들 간의 권력경쟁적 성격을 보였으며 주요한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활동적인 한정된 개인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정치엘리트와 하부구조 사이의 빈약한 연계로 인해 태국의 정당은 뿌리가 없고 형태도 없는 사회, 지역적 집단의 덩어리에 바탕을 둔 인위적인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지배계층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행해졌으며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의회 내에서의 엘리트 상호간의 투쟁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Teeravekin 1996: 145-147).

한편, 선거제도, 정당체계, 그리고 정치체제의 성격 등이 파벌의 생성 및 형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태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제를 오래 동안 채택하였고, 이는 한 선거구 내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동시에 2인 이상이 출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들은 경쟁정당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같은 당내의 후보자와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자연히 선거운동은 정당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파벌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러므로 태국의 파벌주의는 선거제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던 시기에도 파벌간 경쟁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파벌의 생성은 선거제도와 그다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당체계와 파벌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태국의 경우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즉, 양당체계가 당내 양파벌주의를 조장한다고 보며, 다당체계는 다파벌주의를 조장하기 쉽다고 지적하여 정당의 수와 파벌의 수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주장이 있지만 태국의 경우 정당체계와는 상관없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수많은 파벌들이 존재했다.

이외에도 정치체제의 성격과 파벌의 형태에 있어서도 태국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정치체제가 민주적이었던 비민주적이었던 간에 크고 작은 파벌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1960대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 함께 태국의 사회구조는 점차 계층화, 분화되어 정치에서 기술관료와 지식인들의 힘을 증대시키고 있는 반면, 불균형적인 변동으로 인한 잠재

적인 분열현상을 심화시켜 파벌주의와 갈등을 조장하였다.

또한 1980년대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수가 증가되고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파벌의 성격은 이전의 개인중심의 관계에서 고객관계의 공리주의적 파벌로 변화하게 하였고 정치자금의 다양화와 함께 파벌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도록 했다(이병도 2000: 149).

이와 같이 태국의 파벌주의는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그리고 정치체제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가운데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와 정치행위자들의 행태에 의한 산물이며, 이러한 것은 태국의 정당체계를 다당체계를 몰고 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태국의 정당체계는 선거제도와 상관없이 1946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적 다당체계를 유지해왔다.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도 군부지도자들은 종종 의회제도라는 형식을 지배강화와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노력했고, 정치적 경쟁원리에 따른 선거행위의 경쟁성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경쟁적 정당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실시된 선거에서 비록 선거 참여정당들이 12-16개로 여전히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태국 정당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정당들은 5-7개 정도로 이는 태국의 정당 구도가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경쟁적 정당체계가 정형화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존 서구학자들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에 상호관계가 태국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오히려 태국의 정당체계가 지속적으로 다당체계를 형성해 온 요인으로는 태국인의 투표행태와 정치문화적 요인, 정치인들의 행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태국에서 선거는 어떤 이념이나 정책 중심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표성향도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정당들 또한 대중의 지지 기반이 빈약한 인물중심의 명사정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가 정당들 간의 정책이나 이념 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간의 경쟁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후원-수혜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물 중심적인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파벌행태에 의해 운영되며,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및 대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이 연립정권을 구성해야 했다. 또한 그 동안의 태국정당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의 현상은 선거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선거결과로 형성된 정당체계가 재편되는 정치인의 이합집산 현상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정당들은 소수엘리트 계층에 의해 주도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뿐 일반 대중들과의 연계나 접촉이 부족하고 사회적 계층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태국의 사회균열구조가 정당정치에 반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의 정치변혁은 산업화과정 속에서 민족적, 사회계층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 등의 제 측면에서의 균열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지만, 태국의 경우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정치적 측면의 요소가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성립, 정치참여, 정당정치의 경험 등 여러 면에서 서구의 역사적 배경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있어서는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균열 측면보다는 정책과 권력욕에 따른 정치지도자들 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적 균열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지도자 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것은 태국정당이 개별주의적 인

적 유대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인물중심의 정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비정책적인 과별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메카니즘에 의존하고 있는 태국정당의 조직구조가 체질개선을 이루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당체제 역시 정치권내 큰 변동이 없는 한 표면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다당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당정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당지도자와 소속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간 이합집산도 과거 처럼 계속될 것이다. 더구나 파당성이 강한 정치엘리트간의 정략적인 결합과 이탈이 흔히 있어 온 태국 정당정치의 문화는 분열 및 이합집산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태국에서 다당체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볼 때 연립정당간의 결속을 잘 조정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태국 정당정치 발전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셋째, 과거 오랫동안 실시해 온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실시한 2001년 1월 선거에서 타이사랑당이라는 거대정당을 탄생시키면서 정당체제가 다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전환하리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월 총선에서 타이사랑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당수인 탁싸의 대중적 인기도, 그리고 유권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타이사랑당의 선거 공약이 주효했음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성급한 판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선거제도, 정당체제, 다당체제, 투표행태, 정치문화, 정치엘리트**

## 참고문헌

김호진. 1995. 『한국정치체제론』, 서울:박영사.

디터놀렌 저. 박병석 역. 1994.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서울:다다.

- 서경교. 1992-1993. “태국의 민주화 과정(1980-1992)에 대한 일고찰.” 『한국태국학회논총』제5호.
- 온만금. 1991. “정당체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제18집.
- 이병도. 2000. “태국 정당정치 의 변동과 제도화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한수. 1992.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월간고시』12.
- Bunbongkan, Suchit. 1987. *The Military in Thai Politics : 1981-198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 1988. *Kanpattana tang Kanmueng keung Thai: Patisampan rawang Thahan Sataban Kanmueng lae Kanmisuanruamtang Kanmueng keong Prachachon* (태국의 정치발전 : 군부, 정치제도 및 국민의 정치참여 간의 상호관계).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 1999. *Kanpattana tang Kanmueng keung Thai: Patisampan rawang Thahan Sataban Kanmueng lae Kanmisuanruamtang Kanmueng keong Prachachon, 2nd ed.* (태국의 정치발전 : 군부, 정치제도 및 국민의 정치참여 간의 상호관계).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Buruphat, Kchatpai. 1968. *Kanmueng lae Pakkanmuengthai* (태국정치와 정당). Bangkok: Odienstore.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translated by Barbara and Robert Nort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Huntington, Samuel P. 1998.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Mivongukot, Bunsri. 1999. *Kanruektang lae Pakkanmueng* (선거와 정당). Bangkok: P. Press.
- Sartori, Giovanni. 1984. “Influence of Electoral Systems: Faulty Laws or Faulty

- Method.” in Arend Lijphart & Bernard Grofman(eds), *Choosing an Electoral System: Issue and Alternatives*. New York: Praeger.
- Sc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insawat, Narong. 1995. *Kanmuengthai: Kanvikrohcheungchittavitaya* (태국의 정치: 심리학적 분석). Bangkok: Oriental Schalla.
- Teeravekin, Likhit. 1996. *Kanmueng Kanpokkrongthai* (태국의 정치와 통치). Bangkok: Thammasart University Press.
- Tongdhamachart, Kramol. 1971. *Ratsapa nai Rabobkanpokkrongthai*. (태국의 통치제도에서 의회). Bangkok: Samakomsangkomsathaengptatuetthai.
- Trimat, Chawana. 1998. *Keomunpunthan 66pi Prachatipataithai* (태국민주주의 66년의 자료). Bangkok: P. Press.
- Vongtrangan, Kanok. 1993. *Pak Kanmueng Thai* (태국의 정당),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Maticchon. 2001. Feb 2.
- 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498(1955년 제1차 정당법).
- 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511(1968년 제2차 정당법).
- 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517(1974년 제3차 정당법).
- Phrarachabanyatpakkanmueng Pho. Seo. 2524(1982년 제4차 정당법).
- <http://www.bangkokpost.com/election2001/ja.../c140101.htm>
- <http://www.maticchon/weekly/wk-story.asp?selectdate=2001/04/16.htm>

Abstract

##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Party System in Thailand**

Byung-Do Lee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action between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party system in Thailand. It has been usually accepted that electoral system affects the type of party system. In party system, I employed Sartori's party system model.

The transformation of Thailand's party system may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 The first phase is 1932-1973, second phases is 1973-1976, and third phase is 1976-2001. During the period, Thailand political party system continuously sustained a competitive multiparty system irrelevant with electoral system and no single party appeared to be capable of forming a majority government by itself.

As a result, theory of western scholars about interrelation between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party system cannot be applied to the party system change in Thailand.

On the contrary, three factors - electoral behavior factor, political culture factor, and a political actor's factor - have influenced upon the Thailand's party system.

**Key words : Elector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Electoral Behavior, Political Culture, Political Elite**